

# 외국어(영어)과를 통한 세계 시민교육

## (Education for World Citizenship in the Foreign Language Subject Matter)

### 고 창 근\*

####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그 구성원들 전체가 내 나라, 네 나라가 아닌 온 인류가 같은 민족, 한 동네 사람들처럼 생활하게 되는 지구촌 마을이 되었다. 온 우주가 하루사이에 생활할 수 있는 활동무대가 되고 있으며, 국경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간의 울타리 역시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국가 할 것 없이 자의든 타의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은 지구촌을 하루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구나 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전 지구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고 활용되는 정보는 세계 모든 국가, 기업 및 개인들이 공유하게 되었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반대 방향에 있는 지역의 안방에서도 동시에 즐겨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동서의 냉전시대가 붕괴되어 그전까지 존재했던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발전시켜 세계를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속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우리 고장 제주도 역시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월드컵 4강 쾌거에 따른 한국의 위상이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부각되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인구문제, 자원의 고갈 문제, 빈곤퇴치 문제, 인권 탄압문제 등 과거에는 해당국가에서만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문제 거리들이 이제는 해당국가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계인들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 가는 세계화 현상들은 국가와 국가간, 집단과 집단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복합체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싫든 좋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에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적인 편협한 사고를 넘어서 지구촌이라는 마을 속에서 너,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갖도록 어느 한 나라의 국민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도록 교육이 그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이해와 접촉은 이제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어야 함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 시대에 세계 시민으로서 타 국민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외국어(영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영어 교육에서의 세계 시민교육

영어교육에서의 세계 시민교육을 논하는 데에는 세계 시민적 자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영어 교과 시간에 구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세계 시민적 자질을 왜 갖추어야 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소위 왕따 당하지 않고, 다른 나라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제화 시대에 다른 나라 민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른 민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려는 생각,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된 생각을 갖지 않는 자세, 환경문제 같이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보호할 줄 아는 자세, 자기 나라의 문화가 우수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다원화된 의식, 다른 나라와의 갈등 문제를 대화로 순수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일 등 우리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세계 시민적 자질은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사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수도 복잡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어(영어)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자질은 무엇일까? 영어교육에서의 세계 시민적 자질의 교육은 정상적인 영어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속에서 생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1999: 14)에 명시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제 7차 영어과 목표와 연관시켜 보기로 하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나.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을 한다.
-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위에서 제시하는 영어과 교육의 총괄 목표에서, 제시되는 세계 시민적 자질 교육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의사 소통 능력이라 함은 구두 의사 소통 능력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의사 소통 능력 배양 외에 또 하나의 목표는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영어) 교육과정에서 세계 시민적 자질 교육은, 첫째 세계 시민과 자유롭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국제 공용어인 외국어 능력 함양, 둘째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3.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영어교육의 방향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세계 문화를 받아 들이 우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를 좀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현재보다 더욱 친밀감을 갖고 그들과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다.

위에서 논의된 영어과 교육에서 세계 시민적 자질 교육을 토대로 영어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 가. 생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 후 약 50년 동안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영어 교육은 영어 기능보다는 영어 문장을 문법이라는 법칙을 적용하여 풀이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암호 풀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 Grammar-translation Method(문법·번역식 교수법)에 의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전개함이 전부였다. 따라서 실용 중심의 듣기·말하기의 의사 소통 중심의 교육에는 소홀히 하게 되었고, 때문에 우리 영어 교육은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0년을 공부해도 외국인과 전혀 말 한마디 못한다는 병어리 양산 교육이란 비난을 받았었다. 또 그런 선생님들께서 배운 제자들이 다시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오는 악순환을 거듭해오다가 Audio-lingual Method(청각·구두식 교수법)가 등장하면서 듣기-말하기 중심의 기계적인 훈련이 한참 우리의 교단을 지배해 왔었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제5차 영어과 교육 과정과 제6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 점점 의사 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제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의사 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영어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키며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실제 의사 소통과 유사하거나 실제 의사 소통 상황이 되도록 구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며,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 경험과 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나. 자기 문화를 지키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족들간의 이해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구촌 시대의 문화는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주 넓고 다양하게 다른 국가로 전파되어가고 있어, 자의든 타의든 생활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태도는 우리 문화의 확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 수용하는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재료 가운데 ‘문화’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영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교육에는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의례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 까지도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 소통에 필요한 영어권 국가의 생활 양식과 언어 문화, 또한 영어권 국가에서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양식,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문화이해 교육은 자기 나라 문화는 당연하고 다른 나라 문화는 이상하게 여기는 태도를 넘어서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올바른 문화 이해에 기여함으로써 타민족과 충돌함이 없이 평화스럽게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 세계 시민적 자질함양을 위한 영어 교육의 실례

##### 가. 의사 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

영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 시민교육은 당연히 의사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변화되면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우리 나라도 외교관계의 확대, 학문과 산업 기술의 발달, 해외 무역의 증가로 국제 교류가 점차 활발해져 국제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 부응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제주도도 2002년 4월 18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급변하는 주변의 여건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의 영어 교수·학습 방법은 문법-해석 위주의 수업 보다 실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런 필요에 의해 개정된 제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 중심의 영어 교육, 암기 위주가 아닌 언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영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의사 소통 신장에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하의 교과서 역시 종래의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개별학습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휘와 구문 등 문법 면에 치중하고 듣기와 말하기 등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한 의사 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소홀히 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고학년대에 이룰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커서 입시 대비라는 명목으로 문법 중심의 문제 풀이 학습을 계속하고 있어 영어 교육의 실용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6차와 제7차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의사 소통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알맞도록 음성 언어의 비중을 높여 편성하였으며, 각 학

교마다 OHP, Tape Recorder, TV Monitor 등 Multimedia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급의 인원도 35명으로 줄어 분단 학습을 하기에 수월해졌으며, 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촌을 살아갈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과 교사들이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교수·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The Tomato War Festival in Spain

What will happen if you throw tomatoes at others? Of course, you will be in big trouble. In Spain, however, you can throw tomatoes at others during the Tomato War Festival, *La Tomatina*. Why? Well, just for fun! It is part of a week-long festival with music, fireworks, and food.

The Spain people have celebrated this Tomato War Festival since 1944. It began when people celebrated a good harvest of tomatoes. They were so pleased that they began to throw tomatoes at one another. Today,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the festival to enjoy this friendly war.

(Middle School English 2. Dusan Co. P. 183)

위의 예문에서 문법 중심 수업에서는 당연히 번역과 함께 문법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급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What will happen if you throw tomatoes at others?”에서 가정법 현재나 미래의 구문 연습을 시키고 또 접속사가 들어있는 “It began when people celebrated a good harvest of tomatoes.” 구문에서는 ‘when’의 용법과 예를 더 설명해주고, “They were so pleased that they began to throw tomatoes at one another.” 구문의 ‘so~that’ 의미와 부정사 ‘to throw’의 용법을 설명해줄 것이고 “Today,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the festival to enjoy this friendly war.”의 구문에서는 부정사 ‘to enjoy’ 용법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소통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수업에서는 “What is the story about?, Does this story happen in America?, In what country does this story happen? Can you throw tomatoes to others in Korea?, When can you throw tomatoes to others in Spain?, What’s the name of this festival?, From when did this festival begin? ....”등으로 영어 수업이 가능하며 의사 소통을 중심으로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The Tomato War Festival’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보다 더 쉬운 문장, 예를 들면 ‘yes-no Question’을 이용하여 내용 파악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X) Is this story about the Festival?
- Is this story about the Orange War Festival?
- Is this story about the Tomato War Festival?
- Does this story happen in America?
- Does this story happen in Spain?
- Can you throw tomatoes to others in this Festival?

### 나. 타문화 지도를 통한 문화의 상대성 의식 함양

학교에서의 문화 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이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 1>

**Table Manners**

Chinese people talk a lot while they are eating. However, Koreans don't talk a lot when they eat. Americans enjoy talking while they are eat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ir table manners? Here is one. When they want some sugar, they say "Pass me the sugar, please." If a guest says, "Can I have more juice?," They say, "Help yourself."

(Middle School English 2, Daehan Text Co. P.131)

위의 글에 대한 교육 목표는 당연히 'I can understand the table manners



in other countries.’ 와 ‘I can compare our table manner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선생님은 바람직한 국제사회의 식탁 예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음 몇 명씩 조를 구성하여 교과서에 나온 나라에 대하여 식탁 예절을 조사하게 하고 다양한 토론을 거쳐 요약하도록 도와준다. 이 때 선생님은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문법적 오류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영어로 요약하여 차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The Table Manners of International Society

1. Table manners are for enjoying foods.
2. Table manners are for protecting oneself and being safe.
3. You have to make reservation and be on time.
4. You have to dress yourself when you go to the restaurant.
5. You have to be waited to be seated.
6. You have to help an important guest take a seat first.
7. The waiter will guide him or her to the nice place.
8. Man has to help the woman take a seat.
9. You have to be away from your neighbor about 70 centimeters while at table.
10. Woman has to put her handbag between her back and the chair.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식사 예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Homework로 제공하여 좀더 많은 나라의 식사 예절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정리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식사 예절과 어떻게 다르고 조사 발표한 나라의 사람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의 경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실례 2>

**A Fantastic Island Is Waiting for You!**

I live in Jeju-do, a fantastic island in Korea. It has beautiful mountains and beaches. In summer, you can enjoy water skiing. There are other things, too. You can see the traditional ways of life of the older people in Jeju-do. I'm sure you'll have a nice time in Jeju-do. Do you want more information? Here is my e-mail address, min-gi@hatmail.com.

(Middle School English 2, Daehan Text Co. P.42)

위의 <실례 2>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예문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도에 살고 있음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 제주 고유의 문화를 조별로 구분하여 외국의 문화와 연계하여 조사하게 한다. 이때 조사의 범주가 방대하면 국한시켜서 실시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외국어로 조사 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한국어와 혼용하여 또는 한국어로만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선생님은 의사 소통 중심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체험학습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세계화의 붐이 조성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배낭 여행을 하거나 언어 훈련을 위하여 단기 어학 연수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초·중·고등학교에도 예외 없이 찾아와 이제는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해외 탐방이나 체험 학습을 위하여 해외로 나가거나, 혹은 어학 연수를 위하여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0월 중순까지 해외로 나가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 받은 청소년 인원이 약 2,750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미 지급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상당한 청소년들이 해마다 해외로 단기 여행을 떠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Program을 제공하거나 아래와 같은 학습과제(The Plan of Experience Study, The Result of Experience Study)를 제공함으로써 현

지 체험을 통해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체험 활동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어느 기회에 체험 결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도록 하여 동료 학생들의 간접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국제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 The Plan of Experience Study

1. Which country are you going to?
2. Which city are you going to?
3. Why are you going to that country?
4.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5.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your stay?
6. What are you going to study about?
7. What kind of things are you going to collect? .....

### The Result of Experience Study

1. Which country have you been to?
2. Which city have you been to?
3. Why did you go there?
4. How long did you stay there?
5. What did you do during your stay?
6. What did you study about?
7. What kind of things did you collect? .....

### 라. 상호 교류 Program 통한 세계 시민교육

국제교류에 의한 문화 체험의 경험은 대학 사회에서는 이미 실시한지 오래다. 수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와 한국인 가정에 Homestay 하면서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풍습이나 전통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학생들 또한 외국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져 그들의 문화에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도 해마다 열리는 국제 관악제에 참석한 많은 음악인들이 한국의 가정에 머물면서 다양한 제주의 전통 문화에 매료되었던 일들을 기억

하고 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가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7월에 세화고등학교가 일본 오비린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두 학교의 학생들은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가 안내하는 국가의 학생들과 Internet을 통해 교류함으로써 세계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절과 언어,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지구촌 시대의 살아갈 청소년들에게는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국가간의 교류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타문화의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이 넓어져 21세기의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마. 예절 교육을 통한 시민 교육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많은 지구촌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상황하에서도 때로는 과거에 부끄럽게 들었던 'ugly Korean' 이나 'Korea time' 등 별로 반갑지 않은 딱지를 늘 달고 다닌 것이 사실이다.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잠옷 차림으로 호텔 주변을 돌아다닌다든지 몸에 좋다는 보양식품이라면 앞다퉀 구매한다든지 하는 등의 추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의 같은 민족끼리도 공공 질서와 예절이 있듯이 외국인과의 사이에도 지켜야 할 수많은 예절이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감을 갖고 예의바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A: I'm going to visit Korea this summer.

B: Wow, that's great.

**A: What's the interesting place?**

B: Well, if I were you, I'd visit Jeju island.

(Middle School English 3, Cheongsaeck Co., P.114)

위의 대화에서도 'What's the interesting place?'라고 물어봐도 되겠지만, 대

신에 좀더 부드럽고 예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시하여 지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Where would you recommend I go?, What's your suggestion?' 그리고 'Do you know any good place to go?' 등의 표현을 읽히게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영어 표현 중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Hey, you! Where is the post office?'라고 말하는 것과 'Excuse me, Could you please tell me where the post office is?'라고 말했을 때의 청자의 감정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예절의 항목은 일상 생활 예절에서부터 식당 예절, 교통 예절, 공공 장소 예절, 여성을 위한 예절, 실내에서의 예절, 가정방문시의 예절, 예약이나 소개에 관한 예절 등 상당한 분야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을 영어 교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았다.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 나라도 농산물의 개방 등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은 이제 어느 손으로도 막을 수는 없으며 세계 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고,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예의를 지키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를 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시민적 자질을 갖추는 교육 활동은 범 교과적으로 행해져야 할 일이지만, 어느 교과 못지 않게 특히 영어 교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어교육은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인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영어 교육에서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으로 말하고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영어 교과에서의 국제 시민 교육은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은연중에 함양하도록 잠재적 교육활동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제시민적 자질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비의도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영어과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외국어 교사의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은 교사들의 훌륭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갖추어져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교사 자신이 해외 무대로 나아가야 할 진취적인 태도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없이는 교과에서의 세계 시민적 자질 교육은 구두 선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사 자신이 다양한 해외 연수를 통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교실에서의 수업을 생생하게 학생 지도에 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비해서 모든 교사들에게 영어회화 연수를 해마다 시켜오고 있으며, 거이 모든 선생님들의 해외 연수를 통해 문화 체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은 단발로 끝나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선생님들에게도 해외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직접 타문화와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원어민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일은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적 자질을 갖추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들과의 의사 소통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 방식을 느껴보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체득하게 함은 직·간접적으로 좋은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다. 다만 좀더 예산을 투입하여 질 높은 원어민 교사들을 더욱 채용하여 배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데 일조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국의 언어 또한 중요

한데, 제주도인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고,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의 선택이 저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외국어를 선택하여 가르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홍림 외.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고성준·강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도연구』 제21집. 제주학회, 2002.
- 교육부. 『중학교교육과정 해설(V)』. 1999.
- 김성곤외.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주)두산, 2001.
- 김중훈.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정책.” *Language Policy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2002.
- 김향원.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방안.” 『백록논총』 제4권 제1호. 2002.
- 오진혁.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국제 이해력 신장.” 『제주교육』 제113호. 200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이해교육』 제2호. 2000.
-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방향.” 『교육제주』 제115호. 2002.
- 제주도교육청. 『국제이해교육』. 1997.
- 정국진 외.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주)청색, 2002.
- 통계청(제주통계사무소). 『제주의 어제와 오늘』. 2002.
- 현완송. “영어와 제주국제 자유도시.” *Language Policy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2002.